

##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차이\*

주 미 정                      신 현 정                      이 재 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동일 문화권에서의 문화성향(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수직 차원)이 전역/국소 처리(전역선행성 효과)에 미치는 상대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Singelis 등(1995)의 문화성향 질문지(INDCOL)에 기초하여 실험참가자들을 분류한 후, 각 문화 유형에 따라 자극 유형(화살표로 구성된 복합도형 또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복합문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복합자극의 전역 속성과 국소 속성의 일치 또는 불일치 조건)가 체계적으로 조작된 실험조건에서 전역선행성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복합문자에 비해 복합도형에 반응하는 경우, 그리고 자극-자극 속성 일치 조건에 비해 불일치 조건에서 전역선행성 효과가 더 컸으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이나 수평-수직 차원 각각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2) 전역선행성 효과에 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수직 차원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두 차원이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3)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수평-수직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문화권 내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보다 수평-수직 차원이 전역선행성 효과 차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수평-수직 차원,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전역선행성 효과

\*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97).

† 교신저자 : 이재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E-mail : jslee100@pusan.ac.kr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특유의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따라서 특정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태도, 규범, 가치 등을 공유하게 되고(Triandis, 1982),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기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특정 문화에 속한 개인은 그 문화의 영향이 반영된 문화성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성향 중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은 문화간 비교 연구를 수행한 선행 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문화성향에 대한 분류이다.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문화성향에 따른 개인간 혹은 집단간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문화성향에 따른 정보처리에서의 차이도 비교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주제들에는 주의(Kitayama, Duffy, Kawamura, & Larsen, 2003), 지각(Chua, Boland, & Nisbett, 2005; Masuda & Nisbett, 2001), 지각적 범주화(Chiu, 1972; Ji, Zhang, & Nisbett, 2002; Norenzayan, Smith, Kim, & Nisbett, 2002), 점화(Hong, Morris, Chiu, & Benet-Martinez, 2000; Peng, & Knowles, 2003), 근본적 귀인오류(Choi & Nisbett, 1998), 그리고 후견 편파(Choi & Nisbett, 2000)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개인의 문화성향을 비교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개인이 위계성(hierarchy) 혹은 평등성(equality)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수평-수직 차원이다(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는 독립적인 차원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수평-수직 차원의 추가를 통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다(천선문, 이수경, 고애란, 2006; 한규석과 신수진, 1999; Fiske, 2001; Shavitt, Laiwani, Zhang, & Torelli, 2006; Singelis et al., 1995; Triandis, 1995). 동일 문화권에 속한 개인의 문화성향에 따라 전역/국소 처리(global/local processing)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뿐만 아니라 수평-수직 차원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문화성향의 두 가지 독립적 차원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수직 성향 차원에 대한 구체적 기술, 이러한 문화차원과 관련지어 보고된 사람들의 인지적/행동적 차이, 그리고 전역선행성(global precedence) 효과 및 이것이 문화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등을 포함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기술하였다.

## 문화성향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Kagitcibasi(1997)는 문화성향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들을 개관한 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 자기(self)에 대한 정의(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2) 개인의 목표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goals)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Triandis, 1990; Yamaguchi, 1994), (3) 집단내 규범(in-group norms)의 중요도(Bontempo & Rivero, 1992), (4)

관계(relation)를 인식하는 기준으로 합리성(rationality) 또는 관계성(relatedness)의 상대적 중요도(Kim, 1994; Mills & Clark, 1982).

구체적으로, 서양인의 대표적인 문화성향으로 간주되어온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예를 들면, 나는 친절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좋아 한다 등), 독립된(independent)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며, 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가 우선이고, 사회적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보다는 자신의 태도(attitude)를 더 중요시하며, 관계를 인식하는데 합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즉, 관계 인식에서 관계 비용이 보상을 초과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반면 동양인의 대표적인 문화성향으로 간주되어온 집단주의(collectivism)는 가족이나 집단과 같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예를 들면, 나는 장녀이고, 회장이다 등), 집단내 구성원들과 상호의존된(interdependent)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며,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더 우선시하고, 사회적 행동을 할 때 자신의 태도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을 더 중요시하며, 관계를 인식하는데 공동의 관계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개인의 정보처리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들 중 Kitayama 등(2003)은 문화성향에 따른 주의과정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서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 동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네모 상자에 지정된 비율(예를 들면, 1/3)의 막대를 그리는 상대적 과제

(relative task)와 네모 상자에 지정된 길이(예를 들면, 3cm)를 그리는 절대적 과제(absolute task)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테두리-선 과제(framed-line 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맥락과 관계성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 동양권 사람들은 상대적 과제에서 더 좋은 수행을 보인 반면, 대상 자체에 주의를 초점을 기울이는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 절대적 과제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행을 보인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Chua 등(2005)과 Masuda와 Nisbett(2001)의 연구에서는 서양인은 사물의 배경보다는 대상에 시선을 더 빨리 가져가고, 더 오래 응시하였으며, 대상에 대한 재인검사에서 배경의 변화에 따른 수행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동양인은 대상보다는 배경을 더욱 오래 응시했고, 대상에 대한 재인검사에서 배경의 변화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범주화 과정에서도 문화성향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사물들을 범주화할 때 서양인은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rules)에 주로 기초하는 반면, 동양인은 사물들 간의 유사성(family resemblances)이나 관계성(relationship)에 따라 사물들을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었다(Norenzayan et al., 2002). Navon(1977)은 전체적 맥락(혹은 관계성이나 배경)과 대상 지각에서의 이러한 상대적 우세성을 복합자극을 이용한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확인하고, 전역/국소 처리의 관점에서 전역선행성의 개념으로 체계화하였는데, 문화성향에 따라 복합자극에 대한 전역/국소 처리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Navon (1977)의 연구 결과를 포함한 전역선행성의 개념과 문화성향-전역선행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에 대한 자세한 개관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성향은 사람들의 일상적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촬영할 때 서양인은 주로 대상을 중심으로 하지만, 동양인은 배경을 중심으로 촬영하고(Masuda, Gonzalez, Kwan, & Nisbett, 2008),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서양인 엄마들은 명사를 중심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아이들이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반면, 동양인 엄마들은 동사 위주로 설명하여 아이들이 대상과 대상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주거 환경의 조성 방식도 문화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Miyamoto, Nisbett 및 Masuda(2006)는 서양인은 대상이 부각되도록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반면, 동양인은 환경을 대상과 배경이 서로 관련성을 갖도록 조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사람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지각, 인지 그리고 행동 방식 등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Nisbett 등(2001)은 분석적-종합적 사고(analytic-holistic thinking)라는 인지양식의 틀로 정리하였다. 문화성향과 인지양식 사이의 관계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서양인과 같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분석적 사고 경향이 강한 반면, 동양인과 같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종합적 사고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isbett과 그의 동료들은 다양한 사회적/인지적 영역에 걸쳐 서양인과 동양인 사이에 이러한 두 가지 인지양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 연구들을 통해 증명하였다. 서양인과 동양인

사이의 인지양식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Choi, Koo 및 Choi(2007)가 주의의 위치(locus of attention), 인과관계 해석(causality), 변화의 지각(perception of change), 그리고 모순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contradictions) 등의 네 가지 하위 척도를 포함하여 개발한 분석적-종합적 사고 척도(Analysis-Holism Scale: AHS)의 맥락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먼저, 주의의 위치를 비교하면 서양인들은 자극의 전체보다는 부분적 요소에 주의의 초점을 주로 맞추는 반면 동양인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극의 부분적 요소(혹은 대상)뿐만 아니라 그것이 속한 전체적 맥락에도 주의를 기울인다(Masuda & Nisbett, 2006). 인과관계를 해석할 때 서양인들은 일부의 정보만을 사용하여 행위자의 행동 혹은 사건 자체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양인들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사용하여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한 여러 상황 요인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에 기초한 인과관계를 해석한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현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평가하거나 예측할 때도 서양인들은 현상이나 상황의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변화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일관적이고 직선적인 방향으로 발생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양인들은 현상이나 상황에서의 변화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지각한다(Ji, Nisbett, & Su, 2001).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 서양인들은 모순의 양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동양인들은 모순의 양 극단을 절충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Peng & Nisbett,

1999).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그리고 분석적-종합적 사고의 사람들의 보이는 일반적 정보처리를 포함한 인지 및 행동 양식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개인의 문화성향과 인지양식이 사람들의 인지와 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간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문화권 안에서의 개인차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Lin, Lin 및 Han(2008)의 연구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점화 과제를 사용하여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성향을 인위적으로 유도한 후 복합자극에 대한 전역/국소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전역/국소 수준에 대한 반응시간에서의 차이가 집단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또한 Koo와 Choi(2005)는 동일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한의학<sup>1)</sup> 전공 학생들과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 AHS를 실시한 결과, 후자에 비해 전자의 종합적 사고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Choi 등(2007)은 우리나라의 학부생들로 구성된 실험참가자들의 인지양식을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들에게 유사성 판단(범주화) 과제와 인과관계 해석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이 두 집단이 보인 반응에서의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관찰하

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왔고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온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척도(예를 들어, Singelis et al., 1995)를 통해 동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문화성향을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에 기반하여 전역선행성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화성향 척도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문화성향별로 분류한 후 전역선행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상이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전역선행성 효과를 비교하는 것에 비해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개인이 보이는 문화성향에서 차이는 문화간 혹은 국가간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개인차에 기초한 문화성향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개인차에 기초한 문화성향을 비교하는 것은 몇 가지 이론적/실제적 장점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상이한 문화권간 비교보다는 동일한 문화권내에서 비교할 경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체제, 교육, 언어 등에서의 문화간 차이와 같은 오염변인의 혼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의 차이를 문화간 차이와 개인차의 관점에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문화간 차이에 따른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가 동일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의 문화성향에서의 차이에서도 반영된다면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는 개인이 속한

1) 전통적으로 한의학은 종합적 사고를 강조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 기술은 Choi 등(2007)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의 문화 경계를 넘는 일반적 속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동일문화권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전역선행성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는 개인이 갖는 독특한 성향과 같은 미시적 차원보다는 특정 문화의 사회구조나 언어 혹은 전통과 같은 좀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문화권으로 문화성향이 비교적 동질적(즉, 집단주의)이라고 가정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따라 지각 과정에서 차이(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차이)가 관찰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만일 동일 문화권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개인차가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에 각각 속한 개인들 사이의 차이만큼 강력하다면 동일 문화권 안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따라 개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 문화권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차이가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서 관찰되는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력하다면 동일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개인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수평-수직 차원** Triandis(1995)는 문화성향을 하나의 차원에서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이라도 국가마다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과 스웨덴은 동일한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지만 각각 특유의 개인주의 문화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과 이스라엘도 동일한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지만 일본은 이스라엘과는 상이한 일본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다(Singelis et al., 1995; Triandis, 1995). 또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들의 낮은 신뢰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Singelis et al., 1995).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Triandis(1995)는 Hofstede(1980, 2001)가 언급한 권력 거리(power distance)와 유사한 개념인 수평-수직 차원을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추가하여 문화성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평-개인주의, 수직-개인주의, 수평-집단주의, 수직-집단주의. Triandis(1995)가 작성한 문화성향 측정 척도 문항들을 검토해 보면, 수평(horizontal) 성향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등하다’와 같이 타인을 지각할 때 자신과 동등하고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반면, 수직(vertical) 성향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르다’와 같이 타인과 자신을 위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수평-수직 차원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위계(hierarchy) 구조에 의한 불평등의 수용 여부인 것이다. 따라서 수평 성향에 속하는 이들은 사람들 간의 동등성(equality)이 당연시 되는 반면, 수직 성향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지위에 따른 불평등(inequality)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Triandis(1995)의 생각을 종합하면 네 개의 유형으로 문화성향을 분류할 경우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국가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수평

성향과 수직 성향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우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정보처리에서의 차이를 주로 살펴본 반면, Triandis(1995)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는 서로 구별하여 취급했던 수평 또는 수직 차원에 따른 정보처리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도 혹은 경험적으로도 검토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ske(2001)는 사회인지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권력 위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이들의 전역 처리 혹은 국소 처리 경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권력에 대한 위계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도식이나 전체적 맥락에 기반한 전역 처리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자신과 타인이 동등한 권력 상태에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국소 처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Fiske(2001)의 이러한 관찰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전역 혹은 국소 처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흥미있는 이론적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전역 처리 혹은 국소 처리에서의 차별적 양상이 문화성향 중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서의 차이에 의해서만 달라지는지의 여부이다. 사실 이러한 의문은 Oserman(2006)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전역/국소 처리 사이의 관계성을 검토한 연구들이 전역 처리는 맥락이나 관계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문화성향(집단주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국소 처리는

대상이나 독립적 속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문화성향(개인주의)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Lin & Han, 2009; McKone et al., 2010).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 중 하나는 개인이 속한 특정 문화의 다양한 속성(환경, 사회구조, 언어 등)의 습득을 통해 개인의 지각적/인지적 처리도 그러한 문화적 속성에 맞게 편향되기(biased) 때문이라는 것이다(예를 들어, Hommel, Colzato, Scorolli, Borghi, & van den Wildenberg, 2011).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문화성향의 또 다른 차원인 수평-수직 차원과 전역/국소 처리 사이의 관련성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평-수직 차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위계 혹은 평등성의 수용 여부이고, 이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인지 처리가 전역적 혹은 국소적 양상으로 달라진다면 이러한 사회 인지 처리에서의 차이가 지각 수준(특히 전역선행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iandis(1995)가 문화성향 분류를 위해 새로 추가한 수평-수직 차원과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이 서로 구별되는 차원이라는 점과, 수평-수직 차원에 따른 지각처리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만큼 수평-수직 차원도 사람들의 전역/국소 처리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뿐만 아니라 수평-수직 차원에 따른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집단주의 성향에서부터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류승아, 2009; 한규석과 신수진,

1999)에 기초한다면, 전형선행성에서의 차이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보다는 수평-수직 차원에서 더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역선행성 효과

Navon(1977)은 전역자극(global stimulus, 작은 자극들로 구성된 큰 자극)과 국소자극(local stimulus, 큰 자극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자극)이 위계적으로 구성된 복합자극(compound stimulus)을 사용하여 일련의 실험들을 수행한 결과, 복합자극의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이하 '국소반응')보다 전역자극에 대한 반응(이하 '전역반응')이 더 빠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전역자극과 국소자극의 일치 여부(이것을 일반적으로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라고 한다)에 따라 전역자극에 대한 반응시간과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도 관찰하였다. 다시 말해, 국소반응이 요구될 때는 국소자극과 전역자극이 불일치하는 경우(예를 들어, 국소자극 'H'로 구성된 전역자극 'S')가 국소자극과 전역자극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예를 들어, 국소자극 'S'로 구성된 전역자극 'S') 보다 전역자극 반응시간과 국소자극 반응시간 사이의 차이가 더 컸다. 반면 전역자극에 대한 반응이 요구된 경우에는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역자극과 국소자극이 불일치하는 조건에서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경우에 전역자극이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을 방해하는 간섭 현상(일종의 Stroop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Navon(1977)은 이러한 특성을 '전역선행성(global precedence)'이라고 하

였다. 전역선행성 혹은 전역선행성 효과는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에서 전역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지금까지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국소 처리에서의 상대적 우세성 혹은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부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위적 문화성향 접화(Lin & Han, 2009), 인종 또는 국가(McKone et al., 2010)에서의 차이에 따라 복합자극에 대한 전역/국소반응이 차별적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집단주의 성향은 개인주의 성향보다 전역자극에 대한 반응시간과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시간 사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특히 자극-자극 속성이 일치하는 조건보다 자극-자극 속성이 불일치하는 조건에서 전역자극에 대한 반응시간과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시간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주의 문화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전역반응 또는 국소반응과 같이 주어진 조건의 목표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방해자극은 무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반면,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목표자극뿐만 아니라 방해자극에 대해서도 주의를 두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동일 문화권내에서도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더 큰 전역선행성 효과가 관찰되고, 이러한 전역선행성 효과는 자극-자극 속성 일치 조건에 비해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 조건에서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전역선



행성에서의 차별성은 수평-수직 차원에서도 관찰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전반적 전역선행성 효과는 수평 성향보다는 수직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더 클 것이고, 특히 자극-자극 속성 일치 조건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더 증가할 것이다.

## 방 법

**실험 참가자** 먼저 본 연구의 실험 참가자들을 문화성향에 따른 집단별로 분류하여 선발하기 위해 P대학교에서 교양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남녀 학부생 607명을 대상으로 Singelis 등 (1995)이 개발한 INDCOL 척도를 이용한 설문검사를 실시하였다(이 척도에 대한 설명과 본 연구에서 관찰한 신뢰도는 뒤에 제시되어 있다).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 경향성을 통제하기 위해 설문 전체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개인주의 원점수와 집단주의 원점수에서 각각 감산하여 개인주의 점수와 집단주의 점수를 다시 계산하였다. 그 다음 개인주의 점수 상위 30명을 개인주의 성향으로 반면, 집단주의 점수 상위 30명을 집단주의 성향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60명에 대해 개인주의 점수와 집단주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의 수평 성향 점수와 수직 성향 점수를 각각 순위화하였다. 60명의 수평 성향 점수 중 상위 30명을 수평 성향으로 하고, 이와는 독립적으로 다시 60명의 수직 성향 점수 중 상위 30명을 수직 성향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개인주의 내에서의 수평 성향의 사람과 수직 성향의 사람 수는 각각 15명씩이었으며,

집단주의 내에서의 수평 성향의 사람과 수직 성향의 사람 수도 각각 15명씩으로 동일하였다.

60명의 실험 참가자 중 남성은 21명, 여성은 39명이었다. 실험 참가자의 전체 평균연령은 21.10세( $SD = 2.40$ )이고, 이 중 남성의 평균연령은 21.48세( $SD = 2.54$ ), 여성의 평균연령은 20.90세( $SD = 2.33$ )이었다. 모든 실험 참가자의 나안 혹은 교정시력은 보통(0.8)이상이었다.

**문화성향 질문지** 실험 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INDCOL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가지의 문화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8문항씩 할당되어 있다: 수평-개인주의(예: “다른 사람과 달리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수직-개인주의(예: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은 중요하다”), 수평-집단주의(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수직-집단주의(예: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7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문항 중 수평-수직 차원의 측정 문항을 통합한 16개의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측정 문항과 나머지 16개의 집단주의 성향에 대한 측정 문항,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의 측정 문항을 통합한 16개의 수평 성향에 대한 측정 문항과 나머지 16개의 수직 성향에 대한 측정 문항별로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3, 집단주의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4, 수평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78, 그리고 수직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4였다.

**장치 및 기구** 실험 자극의 제시와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 측정을 위해 E-Prime ver. 2를 사용하였다. 자극은 삼성 싱크빅 17인치 LCD 모니터(CX171NM-PS)에 제시하였으며 모니터의 해상도는 1024 × 768, 모니터의 재생빈도는 75Hz였다. 실험 참가자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모니터로부터 60c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턱받침(chin-rest)에 턱을 고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자판의 'z' 키와 'v' 키를 통해 반응을 입력하였다. 두 반응 키 중 'z' 키는 'L' 과 '←' 을 의미하는 '좌' 레이블을, 'v' 키는 'R' 과 '→' 을 의미하는 '우' 레이블을 미리 부착

하였고, '←' 과 '→' 및 'L' 과 'R' 의 의미에 대해서는 실험 전에 미리 참가자들에게 이를 명시하였다.

**자극** 그림 1과 같이 화살표 도형 '→'과 화살표 도형 '←'의 조합으로 구성된 4개의 복합도형(→→, →←, ←←, ←→, 전역-국소 순) 자극과 영문 대문자 'R'과 영문 대문자 'L'의 조합으로 구성된 4개의 복합문자(R<sub>R</sub>, R<sub>L</sub>, L<sub>L</sub>, L<sub>R</sub>, 전역-국소 순) 자극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제시된 복합도형 중 전역도형(→ 또는 ←)의 시각도는 4.97° × 4.30° 이었고, 국소도형(→ 또는 ←)의 시각도는 0.61° × 0.4° 였다. 복합문자를 구성하는 전역문자(L 또는 R)의 시각도는 4.97° × 5.73° 이었고, 국소문자(L 또는 R)의 시각도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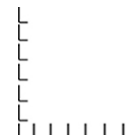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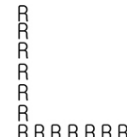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자극 종류		반응 조건	
	복합도형	복합문자	전역반응	국소반응
일치			L키	L키
			R키	R키
불일치			L키	R키
			R키	L키

그림 1.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에 따른 자극의 종류와 반응 조건별 정반응 예시

× 0.7°였다. 응시점은 ‘+’ 모양으로 전역반응을 의미하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응시점의 시각도는 4.5° × 4.5° 이었고, 국소반응을 의미하는 작은 응시점의 시각도는 0.96° × 0.96° 였다. 자극과 응시점은 모두 검은색이고 바탕 화면은 흰색이었다.

**절차** 모든 실험 참가자는 2개의 실험 블록(복합도형과 복합문자) 모두에 참가하였고, 복합도형과 복합문자가 제시되는 순서는 실험 참가자들에 따라 균형화하였다. 각 실험 블록마다 먼저 32회의 연습 시행을 한 후, 80회의 본 시행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 블록 안에서 4개 유형의 복합자극은 각각 20회씩 무선으로 제시되었다. 매 실험 블록에서의 시행 전에 실험 참가자들에게 해당 실험 블록에서 제시되는 4개의 복합자극의 유형과 반응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을 수행할 준비가 되면 <space bar> 키를 눌러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복합자극의 전역에 대해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소에 대해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 모양의 응시점이 모니터 중앙에 500ms 동안 제시되고, 이어 복합자극이 모니터 중앙에 2500ms 동안 제시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응시점의 크기에 따라 전역에 반응 할 것인지 국소에 반응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미리 정해진 키보드의 키를 눌러야 한다. 오반응의 경우에는 착용한 헤드폰으로 경고음을 제시하였다.

실험 참가자가 반응을 종료하거나 혹은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500ms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시행으로 이행되었다. 반응시간은 자극이 제시된 시점에서부터 반응을 종료한 시점(즉 자판의 키를 누른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였고, msec 단위로 저장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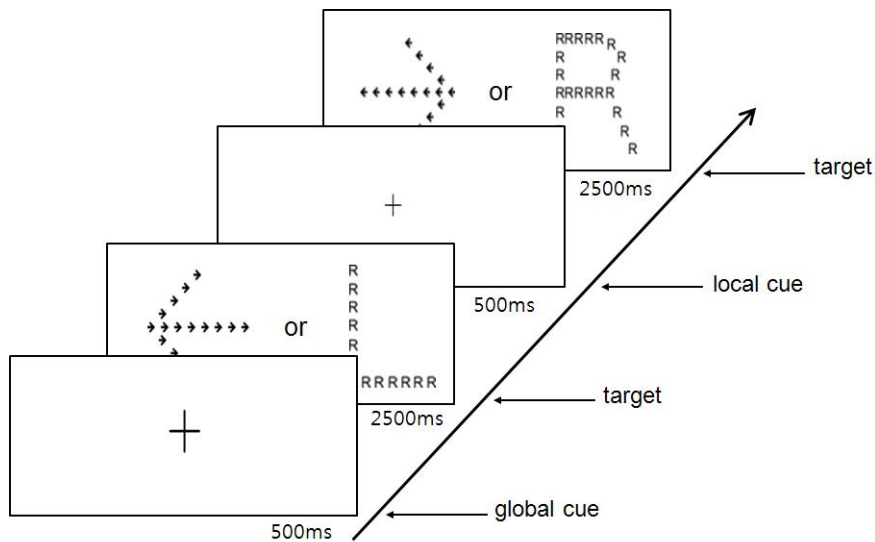


그림 2. 전반적인 실험 절차

다. 한 블록이 끝난 후에는 2분의 휴식이 있었으며, 한 실험 참가자가 총 실험에 소요한 시간은 대략 25분 정도였다. 그림 2는 전반적인 실험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실험설계** 본 실험은 실험 참가자의 두 가지 차원의 문화성향(개인주의 vs. 집단주의, 그리고 수평 vs. 수직 차원)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반면 자극유형(복합도형 vs. 복합문자),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자극-자극 속성 일치 vs. 불일치)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2 \times 2 \times 2 \times 2$  혼합 요인 설계(mixed factorial design)로 이루어졌다.

## 결 과

자극유형(복합도형과 복합문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일치 또는 불일치)에 따른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을 전역선행성 효과의 크기로 계산(즉,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전역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하여 이 값과 오반응율을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of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도 수준은 5%로 정하였다. 총 60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반응시간은 정반응의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반응인 경우라도 반응시간이 200ms보다 짧거나, 1500ms보다 긴 경우는 오반응으로 간주하여 반응시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은 평균 반응시간 및 오반응율을 표기한 것이다.

먼저, 전역선행성 효과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복합도형의 전역선행성 효과가 복합문자의 전역선행성 효과보다 더 컸다( $F(1, 56) =$

25.49,  $MSe = 8755.4$ ,  $p = .000$ ,  $\eta^2 = .31$ , 그림 3(a)). 전역자극 반응이나 국소자극 반응의 여부와 상관없이 복합문자에 비해 복합도형에 대한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았던 반면(표 1), 전역선행성 효과가 복합도형에서 더 크게 관찰된 것은 전역선행성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자극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전역선행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늦게 처리되는 자극(예를 들어, 복합문자)에 비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자극(예를 들어, 복합도형)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 조건의 경우가 자극-자극 속성 일치 조건의 경우보다 전역선행성 효과가 유의하게 더 컸는데 [ $F(1, 56) = 12.24$ ,  $MSe = 4731.9$ ,  $p = .001$ ,  $\eta^2 = .18$ , 그림 3(b)], 이것은 전역선행성 효과가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 조건에서 더 크게 관찰된다는 Navon(197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 크기에서의 차이 [ $F(1, 56) = 3.19$ ,  $MSe = 8373.4$ ,  $p = .079$ ,  $\eta^2 = .05$ ]와 수평-수직 차원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 크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 $F(1, 56) = .78$ ,  $MSe = 8373.4$ ,  $p = .380$ ,  $\eta^2 = .01$ ].

동일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위적 문화성향 점화 절차를 사용하여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 중에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화성향의 차이를 관찰하지 못한 것도 보고되었는데(Lin et al., 2008),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 연구자들은 복합자극 처리과제에서 요구된 시행 수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었기 때문이라고(즉, 80 시행)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표 1. 집단별 평균 전역/국소 반응시간(ms), 오반응율(%) 및 전역선행성(ms) 효과(괄호는 표준편차)

자극 유형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개인주의/ 집단주의	수평성향/ 수직성향	전역반응		국소반응		전역선행성 효과 (국소반응-전역반응)		
				반응시간 (SD)	오반응율 (SD)	반응시간 (SD)	오반응율 (SD)	반응시간 (SD)	오반응율 (SD)	
복합 도형	일치	개인	수평	473.86 (80.56)	1.00 (2.07)	571.13 (96.64)	1.00 (2.07)	97.26 (58.76)	.00 (2.67)	
			수직	471.66 (108.83)	2.00 (4.55)	569.06 (137.49)	.33 (1.29)	97.40 (78.60)	-1.66 (4.87)	
			집단	507.06 (121.50)	.00 (.00)	601.56 (126.15)	2.66 (5.30)	94.50 (69.02)	2.66 (5.30)	
		불일치	수평	540.50 (127.91)	4.66 (5.49)	667.36 (116.50)	8.33 (8.16)	126.93 (80.83)	3.66 (7.89)	
			수직	517.26 (139.19)	4.33 (3.71)	662.76 (128.22)	8.00 (6.21)	146.66 (65.66)	3.66 (6.11)	
			집단	563.33 (136.87)	3.33 (4.49)	687.16 (126.98)	7.00 (8.82)	127.60 (65.76)	3.66 (8.75)	
	복합 문자	일치	개인	수평	604.30 (110.49)	6.00 (10.03)	702.30 (182.00)	5.33 (4.41)	98.00 (157.95)	-6.66 (7.98)
				수직	572.73 (148.52)	7.33 (5.93)	614.06 (121.04)	7.33 (7.03)	41.33 (52.16)	.00 (8.23)
				집단	619.33 (110.26)	6.00 (5.07)	644.06 (102.35)	4.66 (7.43)	24.73 (44.05)	-1.33 (4.80)
		불일치	개인	수평	682.00 (113.24)	15.66 (11.15)	739.03 (115.78)	13.33 (11.75)	57.03 (87.98)	-2.33 (13.61)
				수직	601.30 (162.00)	13.33 (11.75)	716.63 (150.68)	12.33 (5.93)	115.33 (83.09)	-1.00 (9.48)
				집단	672.53 (148.56)	13.33 (10.11)	700.13 (146.40)	6.00 (5.73)	27.60 (106.16)	-7.33 (10.15)
				640.36 (114.91)	9.00 (6.60)	702.86 (100.26)	6.66 (6.72)	62.50 (72.06)	-2.33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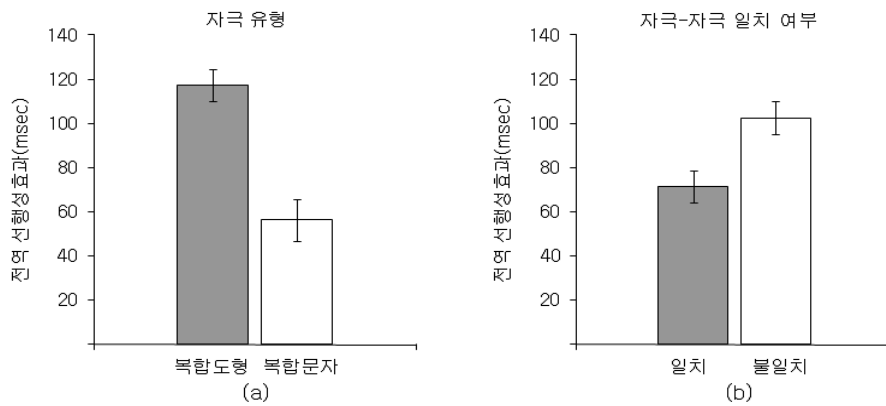


그림 3. 자극 유형(a)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b)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 크기의 비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복합자극 판단과제에서 80 시행이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술되는) 수평-수직 차원과 전역선행성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에 대한 자료도 동일한 시행수에 기반하여 관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의 이유로 단순히 시행수에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보다는 동일 문화권 안에서의 문화성향 차이가 서로 다른 문

화권 사이의 문화성향 차이만큼 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원에서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주의-문화성향이 전역선행성에 미치는 효과는 문화간 문화성향 차이만큼 강하지 못했을 것이다(그림에도 불구하고, 시행 수에 따라 문화성향-전역선행성 관련성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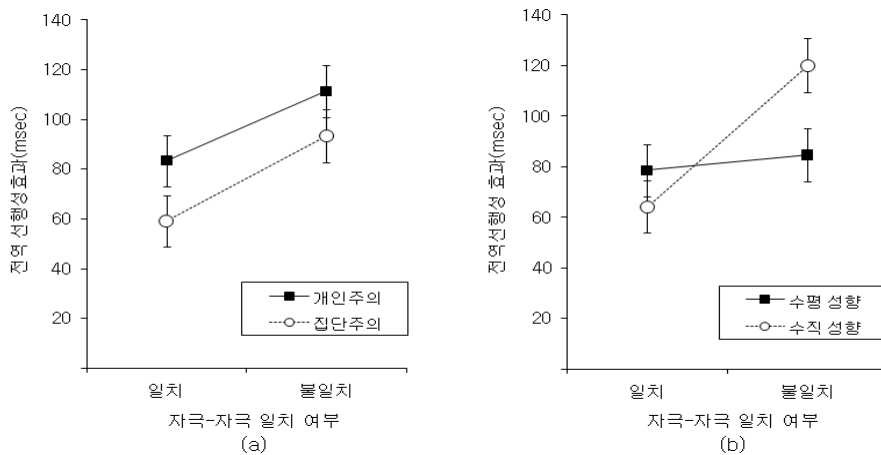


그림 4.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에 따른 집단별 전역선행성 효과 크기의 비교

본 실험의 주요 관심은 문화성향의 두 가지 차원 각각과 자극-자극 속성의 일치/불일치 조건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는지의 여부이다. 전역선행성 효과가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에 따라 달라져, 자극-자극 속성 일치 조건에 비해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 조건에서 전역선행성 효과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Navon(1977)의 보고에 기초하여,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즉, 전역선행성과 동일한 정보처리 단계에서 작용하는) 문화성향의 차원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문화성향 차원(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수직 차원) 각각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여부 사이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F(1, 56) = .12$ ,  $MS_e = 4731.9$ ,  $p = .730$ ,  $\eta^2 = .002$ , 그림 4(a). 수평-수직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사이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F(1, 56) = 7.86$ ,  $MS_e = 4731.9$ ,  $p = .007$ ,  $\eta^2 = .12$ , 그림 4(b).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따라 전역선행성 효과가 달라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경우 전역선행성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고한 기존의 연구 결과(예를 들어, Lin & Han, 2009; McKone et al., 2010)와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특히, 수평-수직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찰하지 않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집단주의 차

원 차원보다 전역선행성 효과와 더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문화권의 실험 참가자들인 경우 전역선행성 효과 차이에 대해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은 서로 가산적 관계를 갖는 반면, 수평-수직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은 서로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보여,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는 달리 수평-수직 차원은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에 따라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에 상대적으로 더 큰 차별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수직 차원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F(1, 56) = .18$ ,  $MS_e = 8373.4$ ,  $p = .669$ ,  $\eta^2 = .003$ ,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수직 차원은 전역선행성 효과에 대해 서로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찰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수직 차원이 독립적 차원이라고 강조한 Triandis(1995)의 생각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된 반응시간에 기초한 전역선행성 효과와 함께 전역반응과 국소반응 사이의 오반응율 차이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오반응율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은 전역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오반응율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량분석 결과, 자극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합도형에서의 오반응율 차이는 복합문자에서의 오반응율 차이보다 더 컸다  $F(1, 56) = 17.18$ ,  $MS_e = 55.87$ ,  $p = .000$ ,  $\eta^2 = .24$ . 그리고 오반응율 차이에서 자극유

형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여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는데 [ $F(1, 56) = 6.62, MS_e = 64.42, p = .013, \eta^2 = .11$ ], 이것은 복합도형의 경우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 조건에서 일치 조건에 비해 오반응을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컸던 반면, 복합문자의 경우는 자극-자극 속성 일치 조건에 비해 불일치 조건에서 오반응을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작았기 때문이다. 복합문자의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 조건에서의 국소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이 다른 자극조건에 비해 가장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 1), 이러한 결과는 반응에서의 반응시간과 반응정확성 사이의 교환적 득실관계(trade-offs)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sup>

## 논 의

본 연구는 동일한 문화권내에서의 문화성향 즉, 동일 국가이면서 동일 인종으로 문화성향의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할 것이라고 가정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을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또는 수평-수직 차원으로 나누어 정보처리 과정의 초기 단계인 지각과정에 미치는 문화성향의 영향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전반적 결과를 보면, 복합문자에 비해 복합도형에 반응하는 경우, 그리고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

조건에서 전역선행성 효과가 더 컸으나, 문화성향을 고려할 경우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이나 수평-수직 차원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2) 전역선행성 효과에 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수직 차원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가장 흥미있는 결과는 (3)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수평-수직 차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는 점이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결과는 동일문화권 안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보다는 수평-수직 차원이 전역선행성 효과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전역선행성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예를 들어, Mckone et al., 2010) 본 연구는 동일 문화권에서의 문화성향 차이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의 상대적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물론 동일 문화권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점화한 후 점화 조건별로 전역선행성을 살핀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Lin & Han, 2009; Lin et al., 2008), 이러한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의 차별화된 의의는 (2) 본 연구가 기존에 주로 다루어져왔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뿐만 아니라 수평-수직 차원도 포함하여 전역선행성에서의 개인차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전역선행성 효과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보다는 수평-수직 차원과 더 많은 관련성을 갖

2) 그러나 오반응을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문화성향과의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반응을 차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문화성향을 언급할 때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뿐만 아니라 수평-수직 차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 한계 중 하나는 실험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을 분류하기 위해 Singelis 등 (1995)의 문화성향 질문지에만 기초하였다는 점이다. 특정한 하나의 질문지에 대한 응답 양상에 기초하여 실험참가자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학문 영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기 는 하지만, 질문지에 대한 응답 양상 자체가 개인의 문화성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거주함으로써 형성된 문화성향에서의 차이와 동일 문화권 안에서 질문지의 응답에 기초하여 분류된 문화성향에서의 차이는 분류의 근본적인 기준 자체가 매우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단일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분류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혹은 수평-수직 차원)은 실제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응답 양상에 기초한 인위적인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문화성향을 질문지에 기초하여 분류하고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수렴적인 기준을 찾아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적용한 Singelis 등 (1995)의 문화성향 질

문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고방식을 기초로 개인의 문화성향을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로 구분하는 분석-종합 사고 척도(Analysis-Holism Scale: AHS, Choi et al., 2007) 등을 동일한 사람들에게 모두 실시한 후, 여러 질문지 혹은 검사 등의 점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문화성향을 분류한다면 문화성향에 대한 집단 분류가 좀 더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의 문화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척도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지를 이용한 개인의 문화성향 분류는 바로 위에서 기술된 본 연구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질문지를 이용한 집단 분류와 더불어 또 다른 형태의 문화성향 집단 구성 방식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들에서 문화성향에 따른 정보처리 과정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집단 분류 방법으로 국가나 인종 차이에 기초하는 방법 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나 ‘우리’를 나타내는 대명사 찾기 과제(e. g., Lin & Han, 2009)나 개인주의 성향 혹은 집단주의 성향을 특징적으로 더 강조하는 특정한 이야기를 개인에게 들려주는 ‘수메르인 전사 이야기’(Sumerian warrior story; e. g., Kuhnen & Oyserman, 2002) 제시 방법을 이용한 점화(priming)기법인데, 이러한 점화 방법은 동일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의 문화성향을 인위적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

한 문화성향으로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관점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문화성향을 분류하였으나(사실 이것은 상이한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만큼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개인의 문화성향도 전역선행성과 같은 기초적 지각과정에서 차이를 가져오는지 관찰하고자 한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국가(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문화성향별로 분류한 후 본 연구에서와 같은 동일한 주제(예를 들어,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의 상대적 차이)의 실험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도 개인에 따라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기초적인 지각과정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면 문화성향에 따른 정보처리의 효과가 문화권간 차이에만 국한되는 특징인지 아니면 문화권간 뿐만 아니라 문화권내 개인차 속성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 속성인지 좀 더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있는 결과 중 하나는, 지각과정(특히,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개인차를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보다는 수평-수직 차원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점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뿐만 아니라 수평-수직 차원에 따른 정보처리에서의 차이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상이한 문화권의 개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차이가(본 연구에서와 같이)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 문화권 안에서의 문화성향에 따른 지각과정에서의 차이가 상이한 문화권 사이에서 관찰되는 차이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나, 문화성향과 지각과정 사이의 관련성에 또 다른 매개변인 혹은 조절변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어떤 사람이 개인주의(혹은 집단주의) 성향이기 때문에 지각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다”라고 결론짓기에 앞서 문화성향과 관련 있는 또 다른 변인의 영향(성격, 지각양식, 성별이나 가족수 등을 포함하는 인구학적 특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박선희와 박태진(2011)은 복합자극의 정서가에 따라 주의범위에 영향을 미쳐 전역/국소 처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문화성향과 지각과정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매개 혹은 조절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문화성향의 차이에 기인한 정보처리양상에서의 차이를 좀 더 타당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복합자극의 제시방식(예를 들어, 주변자극과 표적 사이의 공간적/물리적 속성, 박연우, 손영숙, 김민식, 2001; Park & Kim, 2004)이나 전역/국소자극의 속성(예를 들어, 이심률, 박창호, 2003; 자극확률, 김정오, 1990; 복합자

극의 세부특징, 김정오, 1990)에 따라 전역선행성의 효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에 기초한다면, 문화성향과 전역선행성 효과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할 때 복합자극 자체가 갖는 물리적 속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오 (1990). 주의 기제가 자극 확률효과 및 선행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2, 12-35.
- 류승아 (2009).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25.
- 박선희, 박태진 (2011). 전역/국지처리 과제에서 정서자극이 시각적 주의범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3, 139-151.
- 박연우, 손영숙, 김민식 (2001). 주변자극의 전역 및 국지형태가 표적자극의 국지형태 처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3, 271-285.
- 박창호 (2003). 전역 선행성 원리에 대한 한 반증: 두 수준의 이심률이 동등한 경우에도.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5, 549-559.
- 천선문, 이수경, 고애란 (2006). 문화성향이 의 복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7, 277-300.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93-310.
- Bontempo, R., & Rivero, J. C. (1992). *Cultural variation in cognition: The role of self-concept in the attitude behavior link*.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Academy of Management in Las Vegas, Nevada.
- Chiu, L. H. (1972).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ognitive styles in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7, 235-242.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in the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 Choi, I., & Nisbett, R. E. (2000). Cultural psychology of surprise: Holistic theories and recognition of contra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890-905.
- Choi, I., Koo, M., & Choi, J. A.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691-705.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Chua, H. F., Boland, J. E., & Nisbett, E. R. (2005). Culture variation in eye movements during scene percep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2, 12629-12633.
- Fiske, S. (2001). Effects of power on bias: Power

- explains and maintains individual, group, and societal disparities. In A. Lee-Chai & J. Bargh (Eds.), *The use and abuse of power: Multiple perspectives on the causes of corruption* (pp. 181-194).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H.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Hommel, B., Colzato, L. S., Scorolli, C., Borghi, A. M., & van den Wildenberg, W. (2011). Religion and action control: Faith-specific modulation of the Simon effect but not stop-signal performance. *Cognition*, 120, 177-185.
- Hong, Y., Morris, M. W., Chiu, C., & Benet-Marti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 Ji, L., Nisbett, R. E., & Su, Y. (2001). Culture, change, and prediction. *Psychological Science*, 12, 450-456.
- Ji, L., Zhang, Z., & Nisbett, R. E. (2002). Culture, language, and categorization. Kingston, Ontario: Queens University.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 M.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3, pp.1-50). Boston: Allyn & Bacon.
- Kim, U.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elaboration.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C. Choi, & G. Yoon.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19-40). Thousand Oaks, CA: Sage.
- Kitayama, S., Duffy, S., Kawamura, T., & Larsen, T. J. (2003). Perceiving an object and its context in different cultures: A cultural look at the New Look. *Psychological Science*, 14, 201-206.
- Koo, M., & Choi, I. (2005). Becoming a holistic thinker: Training effect of Oriental medicine on reas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9.
- Kuhnen, U., & Oyserman, D. (2002). Thinking about the self influences thinking in general: Cognitive consequences of salient self-concep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492-499.
- Lin, Z., & Han, S. (2009). Self-construal priming modulates the scope of visual atten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2, 802-813.
- Lin, Z., Lin, Y., & Han, S. (2008). Self-construal priming modulates visual activity underlying global/local perception. *Biological Psychology*, 77, 93-97.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suda, T, Gonzalez, R, Kwan, L, & Nisbett, R. E. (2008). Culture and aesthetic preference: Comparing the attention to context of East

- Asians and Americ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260-1275.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22-934.
- Masuda, T., & Nisbett, R. E. (2006). Culture and change blindness. *Cognitive Science*, 30, 381-399.
- McKone, E., Davies, A., Fernando, D., Aalders, R., Leung, H., Wickramariyaratne, T., & Platow, M. (2010). Asia has the global advantage: Race and visual attention. *Vision Research* 50, 1540-1549.
- Mills, J., & Clark, M. S. (1982).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 pp.121-144). Beverly Hills, CA: Sage.
- Miyamoto, Y., Nisbett, R. E., & Masuda, T. (2006). Culture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Holistic versus analytic perceptual affordances. *Psychological Science*, 17, 113-119.
- Navon, D. (1977). Forest before trees: The precedence of global features in visual perception. *Cognitive Psychology*, 9, 353-383.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Norenzayan, A., Smith, E. E., Kim, B. J., & Nisbett, R. E. (2002). Cultural preferences for formal versus intuitive reasoning. *Cognitive Science*, 26, 653-684.
- Oyserman, D. (2006). High power, low power, and equality: Culture beyond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6, 352-356.
- Park, C., & Kim, J. (2004). Attention shift to global and local level of a form depends upon stimulus set. *The Korea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6, 169-189.
- Peng, K., & Knowles, E. D. (2003). Culture, education, and the attribution of physical caus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272-1284.
- Peng, K., & Nisbett, R. E. (1999). Culture, dialectics, and reasoning about contradiction. *American Psychologist*, 54, 741-754.
- Shavitt, S., Laiwani, A. K., Zhang, J., & Torelli, C. J. (2006). The horizontal/vertical distinction in cross-cultur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6, 325-356.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riandis, H. C. (1982). Review of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Human Organization*, 41, 86-90.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41-13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Yamaguchi, S. (1994). Empirical evidence on collectivism among the Japanese.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C. Choi, & G. Yoon.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175-188). Thousand Oaks, CA: Sage.
- 1 차원고접수 : 2012. 1. 30  
수정원고접수 : 2012. 2. 27  
최종게재결정 : 2012. 3. 13

## Differential Effects of the Cultural Orientation Dispositions on Global Precedence

**Mijung Joo**

**HyunJung Shin**

**Jaesi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dimension (IC) and horizontal-vertical dimension (HV) in cultural orientation of individuals in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on global precedence.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IC and HVD groups, and asked to respond to compound stimuli which were varied by stimuli types (figure/letter) and stimulus-stimulus (S-S) congruence. Differences in global precedence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First, although global precedence was larger in the compound figure than in the compound letter, and larger in the S-S incongruent condition than the congruent condition, none of cultural orientation dimensions made any difference. Second, IC and HV affected global precedence independently. Thir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HV and S-S congruence was found, but there was no interaction between IC and S-S congruence. These results indicated HVD rather than IC can be a more valid dimension to compare the effec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ultural orientation on global precedence.

*Key words : individualism-collectivism, horizontal-vertical dimension, stimulus-stimulus congruence, global precedence*